

## 일부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학만족도와 진로방향,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문선정<sup>1</sup>, 구인영<sup>1</sup>, 최화영<sup>1</sup>, 가경환<sup>\*</sup>  
<sup>1</sup>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sup>2</sup>경운대학교 경호학부

### A Study on Enrollment Satisfaction, Career Directions, and Image of Dental Hygienists for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Seon-Jeong Moon<sup>1</sup>, In-Young Ku<sup>1</sup>, Hwa-Young Choi<sup>1</sup>, Kyung-Hwan Ka<sup>2\*</sup>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woo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rotection Science,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대한 기준제시와 치과위생사의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46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679부를 SPSS/Win18.0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선택후회와 진학추천의 경우 1학년이 2, 3, 4학년보다 높았고, 전과희망은 3, 2,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진학만족도가 높았다. 희망진로는 모든 학년에서 치과위생사로의 취업이 높았고, 취업 희망경로는 1학년의 경우 교수추천, 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공개채용이 높았다. 취업희망 지역은 대도시, 선택이유는 발전가능성이 높았다. 취업 희망기간은 모든 학년에서 결혼 전, 자녀성장 후 재취업이 높았고, 희망근무처는 1학년 대학병원치과, 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치과병원이 높았다. 학년에 따른 치위생사 이미지 차이에서 태도의 경우 1,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신념은 1, 2학년이 3, 4학년보다 높았으며, 가치는 4학년이 1, 3, 2학년보다, 2,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신념은 저학년일수록, 가치는 고학년일수록 높았다. 진학만족도 요인 중, 전과희망과 진학권유 요인이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치과위생사의 바람직한 이미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in dental hygiene students at colleges or universities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suggest standards for the direction of career for dental hygiene students and construct desirable image of dental hygienis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May 2013; with the exception of 46 questionnaires containing sincere responses, 1,679 were finally analyzed using SPSS/Win 18.0, drawing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freshmen showed higher levels of regret for selection and enrollment recommendation than the sophomores, juniors, or seniors and the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showed higher levels of willingness to change courses than the freshmen; thus, those in lower grades showed higher enrollment satisfaction. As for desired career, regardless of grades, they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being employed as a dental hygienist; as for desired paths to get a job, the freshmen were more likely to get professors' recommendations and the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open recruitment. They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getting a job in a large city because of greater possibility of improvement. As for the desired period of employment, regardless of grades, they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employment before getting married and for reemployment after their children grew up; as for desired workplace, the freshmen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a dental clinic in a hospital, whereas the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a dental hospital. As for the differences in image of dental hygienists by grades, the freshmen and sophomores showed higher levels of attitudes than the juniors; the freshmen and sophomores showed higher levels of beliefs than the juniors or seniors; and the seniors showed higher levels of values than the freshmen, sophomores, or juniors, and the sophomores and juniors showed higher levels of values than the freshmen; thus, students in lower grades showed higher levels of attitudes and beliefs and those in higher grades showed higher levels of values. Such factors of enrollment satisfaction as willingness to change courses and persuasion to make enroll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Dental hygiene students need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job identity and get desirable image of dental hygienists and to make constant efforts to promote more accurate and positive image of dental hygienists through systematic and positive public relations.

**Key Words** :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irection of career, Image of dental hygienist, Pathways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ng-Hwan Ka(Kyungwoon Univ.)

Tel: +82-10-8705-0030 email: khka@ikw.ac.kr

Received October 31, 2014 Revised (1st December 4, 2014, 2nd December 22, 2014, 3rd January 6, 2015) Accepted January 8, 2015

## 1. 서론

의료에 대한 국민의식의 향상 및 권리의식의 증가, 경제적 소득증대, 소비자주의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급 의료 선호경향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1][2].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친절한 태도, 병원시설 등의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는 구강보건 분야의 전문·세분화를 촉진시켰다[3]. 이에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사만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구강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 및 서비스의 개념까지도 겸비한 전문인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4]. 구강보건의료서비스는 구강보건의료 인력인 치과 의사,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행하는 치과위생사, 기타 인력인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생산되며, 양질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의료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5]. 이러한 전문 인력 중 치과 위생사는 치과 의사와 함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구강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술식가이며, 구강보건향상과 구강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자로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4][6]. 최근 중견 전문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7].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은 1965년 3월 연세 대학교에서 시작되었고, 2013년 한해 전국 80여개의 대학에서 5,093명의 학생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8]. 매년 수천 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높은 이직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9]. 이러한 현상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근무지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과 의사의 인식부족으로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전문직으로서의 바람직한 이미지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0]. 정립되지 않은 전문직 이미지는 낮은 자아상과 직무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고, 이직률을 증가시키며, 결국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11].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문 직업의 이미지가 그 전문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립되지 않고, 왜곡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위상, 역할 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이미지 정립은 중요하다[11][12].

치과위생사 스스로가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면 치과위생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바르게 정립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선호의 기반이 될 것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방향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진로 방향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13].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후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면서 진로 선택에 후회를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14][15].

정 등[16]은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 이미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조사하였고, 김과 정[1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구강건강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사회적 지위와 평생 직업으로는 부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과 이[18]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강과 김[11]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문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윤 등[19]은 치위생과 학생들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경우 성취동기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향후 구강보건현장에 진출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가시키고, 진로방향을 확립시켜 대학생 적응도를 높일 것이다.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확실한 신념과 태도를 결정하는 직업관은 치과위생사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전공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공만족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세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앞으로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함에 있어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진로방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가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전공만족도, 진로방향,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파악하여 향후 진로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요인을 분석하여 전문직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대구·경북지역 소재(3년제; 9개교, 4년제; 2개교)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해당 학과에 협조를 구한 뒤, 2,100부(3년제; 1,700부, 4년제;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72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46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67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는 최와 김[20]의 연구와 임[21]과 김[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전공학과 태도 4문항, 진학만족도 3문항, 진로방향 10문항, 치과위생사 이미지 19문항,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과 전공학과 태도, 진로방향은 명명척도, 진학만족도는 3점 Likert척도, 치과위생사 이미지 관련 항목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진학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신뢰도 검사 결과, 진학만족도(선택후회, 전과이지, 진학추천)는 .729~.745, 치과위생사 이미지(태도, 신념, 전문성, 가치, 역할)는 .741~.863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택되었다[Table 1][Table 2].

[Table 1] Reliability of the major pathways satisfaction

Question	Chronbach's $\alpha$
Select regret	.734
Intention to transfer	.729
Other recommended	.745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ntal hygienist image

Question	Attitude	Conviction	Expertise	Worth	Role
Integrity, responsible	.814				
Kindness	.768				
Confidence	.753				
Respect patient	.706				
Clean, tidy	.700				
Positiveness	.617				
Lifetime job fit	.740				
Sense of duty	.694				
Professional pride	.642				
Recommended profession	.637				
This job is easy			.787		
Dental nurse recognized			.776		
Professions			.644		
Title has not been credited				.838	
May not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egion				.767	
Stressful job				.712	
Role in the oral health					.856
Secondary role of the dentist					.792
Intermediary between the dentist and the patient					.751
Chronbach's $\alpha$	.763	.837	.841	.863	.741

### 2.3 분석방법

회수된 자료는 SPSS/Win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다. 먼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동질적인 특성을 찾는 차원분류를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요인화된 속성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전공학과에 대한 태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별 진로방향은 교차분석, 진학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검증을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진학만족도가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학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인 특성

여자 98.6%, 남자 1.4%이었고, 학년분포는 1학년 33.9%, 2학년 31.0%, 3학년 30.5%, 4학년 4.6% 순이었다. 출신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80.8%, 실업계가 17.6%, 기타가 1.6%이었고, 생활지역은 중소도시 42.8%, 대도시 40.1%, 군 17.1% 순이었다. 가족 중 치과위생사 유무는 없다가 84.9%, 있다가 15.1%이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

Item	Division	N	%
Gender	Male	24	1.4
	Female	1,655	98.6
Grade	Grade 1	569	33.9
	Grade 2	521	31.0
	Grade 3	512	30.5
	Grade 4	77	4.6
	Academic high school	1,357	80.8
Graduated from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295	17.6
	Others	27	1.6
	Gun	287	17.1
Living area	Mid-small city	718	42.8
	Large city	674	40.1
Presence of dental hygienists family	Yes	253	15.1
	No	1,426	84.9

by frequency analysis

#### 3.2 전공학과에 대한 태도

입학 시 지원순위의 경우 1지망이 53.1%, 입학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 되서가 40.0%, 정보를 얻은 경로는 대학모집 요강을 통해서가 39.3%로 가장 높았고, 해외진출의 기회가 오면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Attitude toward major

Item	Division	N	%
Support for admission ranking	First choice	891	53.1
	Second choice	555	33.1
	Not support dept	233	13.8
Admission motivation	Match the aptitude	192	11.4
	High school grades	173	10.3
	Invite close	554	33.0
	Job easier	671	40.0
	Unique in the majors	55	3.3
	Press releases	19	1.1
	Others	15	0.9

Information collected path	Dental hygienist	131	7.8
	Media	334	19.9
	College admissions	660	39.3
	Seniors	91	5.4
	Teachers	147	8.8
	Dental experience	137	8.2
Overseas opportunities	Others	179	10.6
	Will go directly	526	31.3
	Build careers	418	24.9
	In some cases	697	41.5
I will not go	38	2.3	

by frequency analysis

#### 3.3 진학만족도

학년에 따른 진학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선택대회, 전과외지, 진학추천 모든 요인에서,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 < .05$ ),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 선택대회와 진학추천에서 1학년이 2, 3, 4학년보다 높았으며, 전과외지에서는 3, 2,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진학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Table 5].

[Table 5] Major pathways satisfaction Mean±SD

Division	N	Major pathways		
		Select regret	Intention to transfer	Other recommended
Grade1(a)	569	2.85±.48(a)	1.29±.69(a)	2.65±.61(a)
Grade2(b)	521	2.56±.78(b)	1.48±.82(b)	2.46±.74(b)
Grade3(c)	512	2.45±.85(b)	1.56±.86(b)	2.35±.80(b)
Grade4(d)	77	2.47±.84(b)	1.45±.80(b)	2.25±.79(b)
F		31.75(.000)	11.71(.000)	19.19(.000)
Scheffé		a>b	b>a	a>b

by one-way ANOVA,  $p < 0.05$

#### 3.4 진로방향

학년별에 따른 진로방향에서 희망진로, 취업 희망경로, 취업 희망지역 선택이유, 취업 희망기간, 희망근무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희망진로는 모든 학년에서 치과위생사로의 취업이 높았고, 취업 희망경로는 1학년의 경우 교수추천이 42.2%로 높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공개채용이 각각 37.4%, 46.3%, 61.0%로 높았다. 취업희망 지역은 대도시를 희망하였고, 모든 학년에서 취업희망 지역 선택이유는 발전가능성 항목이 높았다. 취업 희망기간은 모든 학년에서 결혼 전, 자녀성장 후 재취업이 높았고, 희망근무처는 1학년의 경우 대학병원치과 45.3%, 2, 3, 4학년의 경우 치과병원이 각각 24.2%, 30.3%, 33.8%로 높았다[Table 6].

[Table 6] Career direction N(%)

Item	Division	Grade				$\chi^2$ (p)
		1	2	3	4	
Hope career	Dental hygienist	509(89.4)	425(81.6)	427(83.3)	60(77.9)	
	Other	42(7.4)	62(11.9)	69(13.5)	13(16.9)	
	Transfer	12(2.1)	20(3.8)	3(0.6)	0(0.0)	
	Marriage	1(0.2)	4(0.8)	4(0.8)	2(2.6)	
	Do not think	5(0.9)	10(1.9)	9(1.8)	2(2.6)	
Job reasons	Self-realization	43(7.5)	33(6.3)	34(6.6)	6(7.8)	12.82 (.802)
	Economic	376(66.1)	344(66.0)	343(67.0)	52(67.5)	
	Social status	62(10.9)	68(13.1)	57(11.1)	8(10.4)	
	Social experience	36(6.3)	33(6.3)	23(4.5)	3(3.9)	
	Using knowledge	46(8.1)	38(7.3)	46(9.0)	8(10.4)	
	Activities	5(0.9)	1(0.2)	6(1.2)	0(0.0)	
Jobs route	No reason	1(0.2)	4(0.8)	3(0.6)	0(0.0)	
	Public jobs	145(25.5)	195(37.4)	237(46.3)	47(61.0)	
	Scout	157(27.5)	134(25.7)	109(21.3)	9(11.7)	
	Professor suggest	240(42.2)	162(31.1)	126(24.6)	14(18.2)	
	Family suggest	19(3.3)	14(2.7)	19(3.7)	4(5.2)	
Hope local employment	Informal contacts	6(1.1)	10(1.9)	18(3.5)	3(3.9)	
	Other	2(0.4)	6(1.2)	3(0.6)	0(0.0)	
	Gun	9(1.6)	9(1.8)	14(2.7)	0(0.0)	
	Mid-small city	116(20.4)	94(18.0)	111(21.7)	13(16.9)	
	Large city	408(71.7)	397(76.2)	372(72.7)	60(77.9)	
Why choose hope area	Overseas	36(6.3)	21(4.0)	15(2.9)	4(5.2)	
	Connection	54(9.5)	60(11.5)	95(18.6)	12(15.6)	
	Growth potential	300(52.7)	263(50.5)	233(45.5)	38(49.4)	
	Family situation	40(7.0)	35(6.7)	37(7.2)	3(3.9)	
	Learning recharge	29(5.2)	35(6.7)	25(4.9)	6(7.8)	
Work period	Pay	123(21.6)	95(18.3)	86(16.8)	16(20.7)	
	Other	23(4.0)	33(6.3)	36(7.0)	2(2.6)	
	Lifetime	236(41.5)	170(32.6)	169(33.0)	21(27.3)	
	Before marriage	13(2.3)	26(5.0)	31(6.1)	4(5.2)	
	Before birth	35(6.1)	52(10.0)	44(8.6)	10(13.0)	
Hope business	Outplacement	272(47.8)	260(49.9)	243(47.5)	35(45.5)	39.96 (.000)
	Other	13(2.3)	13(2.5)	25(4.8)	7(9.0)	
	University hospital	258(45.3)	118(22.6)	57(11.1)	11(14.3)	
	General hospital	94(16.5)	105(20.2)	85(16.6)	15(19.5)	
	Dental hospital	95(16.7)	126(24.2)	155(30.3)	26(33.8)	
Work motivation	Dental clinic	30(5.3)	67(12.9)	107(20.9)	8(10.4)	280.84 (.000)
	Public health	61(10.7)	57(10.9)	71(13.8)	7(9.1)	
	Health room	16(2.9)	23(4.5)	21(4.1)	3(3.9)	
	Related companies	7(1.2)	10(1.9)	9(1.8)	5(6.5)	
	Large infirmary	4(0.7)	8(1.5)	4(0.8)	2(2.5)	
Preferred work	Other	4(0.7)	7(1.3)	3(0.6)	0(0.0)	
	Self development	126(22.1)	126(24.2)	108(21.1)	16(20.8)	
	Economic reasons	359(63.2)	315(60.5)	319(62.3)	55(71.4)	
	Social experience	74(13.0)	67(12.8)	71(13.9)	4(5.2)	
	Recreation	7(1.2)	9(1.7)	9(1.7)	1(1.3)	
Hope salaries (10,000 won)	Other	3(0.5)	4(0.8)	5(1.0)	1(1.3)	8.18 (.771)
	Preventive care	148(26.0)	156(29.9)	116(22.7)	18(23.4)	
	Oral health education	119(20.9)	100(19.2)	91(17.8)	18(23.4)	
	Care coordination	224(39.4)	206(39.5)	229(44.6)	30(39.0)	
	Dental management	73(12.8)	54(10.4)	72(14.1)	10(13.0)	
Other	Other	5(0.9)	5(1.0)	4(0.8)	1(1.2)	13.14 (.359)
	Less than 1,500	2(0.4)	5(1.0)	8(1.6)	0(0.0)	
	1,500~1,800	31(5.4)	51(9.8)	38(7.4)	6(7.8)	
	1,800~2,000	162(28.5)	147(28.1)	164(32.0)	29(37.6)	
	2,000~3,000	227(39.9)	198(38.1)	193(37.7)	27(35.1)	
Over 3,000	147(25.8)	120(23.0)	109(21.3)	15(19.5)		

by chi-square test,  $p < 0.05$

### 3.5 치과위생사 이미지

학년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 태도, 신념, 가치 요인에서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 < 0.05$ ), 사후검증

(Scheffe test) 결과 태도의 경우 1,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신념은 1, 2학년이 3, 4학년보다 높았으며, 가치는 4학년이 1, 3, 2학년보다, 2,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신념은 저학년일수록, 가치는 고학년일수록 높았다[Table 7].

[Table 7] Dental hygienist image Mean±SD

Division	N	Dental hygienist image				
		Attitude	Conviction	Expertise	Worth	Role
Grade1(a)	569	3.86±.54(a)	3.63±.59(a)	4.05±.52(a)	3.07±.61(a)	3.63±.49(a)
Grade2(b)	521	3.81±.56(a)	3.58±.63(a)	4.06±.53(a)	3.38±.58(b)	3.63±.47(a)
Grade3(c)	512	3.66±.57(b)	3.43±.62(b)	4.06±.55(a)	3.46±.63(b)	3.58±.68(a)
Grade4(d)	77	3.68±.50(ab)	3.30±.57(b)	4.09±.49(a)	3.75±.53(c)	3.58±.44(a)
F		12.72(.000)	14.54(.000)	.190(.903)	55.63(.000)	1.14(.331)
Scheffé		a>b	a>b	-	c>ab, b>a	-

by one-way ANOVA,  $p < 0.05$

### 3.6 진학만족도가 치위생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진학만족도 요인 중, 전과외지( $\beta = -.076$ )와 진학권유( $\beta = .099$ ) 요인에서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전공만족 전체변량의 약 18.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우회는 치위생사 이미지 요인 중, 태도( $\beta = .117$ )와 신념( $\beta = .080$ )에 정적(+) 영향, 가치( $\beta = -.088$ ) 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과외지는 신념( $\beta = -.120$ )과 전문성( $\beta = -.109$ ), 태도( $\beta = -.085$ ) 요인에 부적(-) 영향을, 가치( $\beta = .074$ )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학추천은 신념( $\beta = .282$ )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치위생사 이미지 전체 변량의 태도 21.0%, 신념 40.9%, 전문성 11.4%, 가치 17.7%, 역할 2.2%를 설명해주고 있다[Table 8].

[Table 8] Major pathways satisfaction on dental hygienist image

Major pathways	Dental hygienist image					
	Attitude	Conviction	Expertise	Worth	Role	Total
Select regret	.088 (.117***)	.066 (.080**)	.018 (.025)	-.075 (-.088**)	.008 (.011)	.021 (.046)
Intention to transfer	-.059 (-.085**)	-.093 (-.120***)	-.072 (-.109***)	.058 (.074**)	.004 (.066)	-.032 (-.076**)
Other recommended	.040 (.053)	.239 (.282***)	-.013 (-.017)	-.046 (-.054)	.012 (.016)	.046 (.099***)
R <sup>2</sup>	.210	.409	.114	.177	.022	.183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p < 0.0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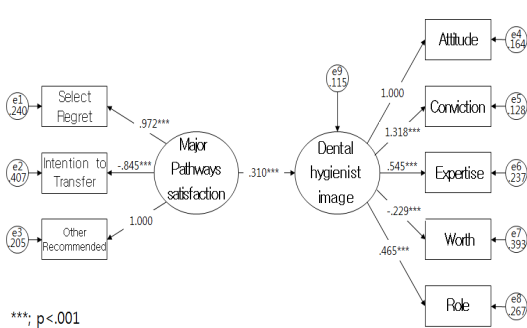
### 3.7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인과관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학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2=316.06(df=19, p=.00)$ , GFI=.949, CFI=.908, TLI=.842, RMSEA=.097, RMR=.027 등으로 비교적 모델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TLI와 RMSEA가 기준치에 조금 미치지 않지만, CFI가 .90 이상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RMR도 .05 밑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9].

[Table 9] Bonding of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GFI	CFI	TLI	RMSEA	RMR	$X^2$	df	p
Based Model	.949	.908	.842	.097	.027	316.06	19	.000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학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치위생사 이미지에 투입된 진학만족도[ $\beta=.310, p>.000$ ]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있었다[Fig 1].



[Fig. 1] Causality between major pathways satisfaction and dental hygienist image

## 4. 고찰

진로의 방향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제시가 필요하고, 직업의 이미지는 그 직업의 경쟁력으로 직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12]. 전공만족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세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선호의 기반이 될 것이며, 치과위생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정규 치과위생사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전문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18][20]. 반면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는 치과위생사의 위상과 역할에 차질을 빚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18].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제시와 올바른 이미지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전공학과에 대한 태도에서 입학 시 지원순위의 경우 1 지망이 53.1%로 가장 높았고, 임[21]과 김[22]의 연구에서도 지원순위의 경우 치위생과에 대한 지망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의 의사로 치위생과에 입학했을 때 치위생과의 희망정도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입학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됨이 가장 높았고, 정과 최[23]의 연구에서도 취업률과 보수가 좋아서가 가장 높았으며, 강과 김[11], 임[21]의 연구에서도 취업률이 좋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박과 김[2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졸업 후 진로문제로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요인 중 졸업 후 취업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취업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과 취업의 용이성을 보이는 보건계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를 얻은 경로는 대학모집 요강을 통해서가 가장 높았고, 임[21]의 연구에서도 대학모집 요강이 가장 높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대학 진학률과 전공학과에 대한 관심, 대학의 입시 활동을 통한 대학모집 요강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보를 얻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진학 전의 학생들에게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만족도와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장래가 유망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사전지식 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진출의 기회가 오면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가 41.5%로 가장 높았고, 윤 등[19]의 연구와 황과 이[18], 이 등[25]의 연구에서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가 가장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해외진출의 기회와 정보의 접촉이 많지 않으므로 해외진출 기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많아진다면 결정방향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택후회 여부와 진학추천, 전과의지에서 저학년일수록 진학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치위생(학)과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정보를 습득한 신입생이 재학생보다 학과 선택 시 동기가 명확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와 김[26], 임[21]의 연구에서도 저학년의 경우 진학을 후회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고학년의 경우 교내·외 실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와 실습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위치, 신입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태도 등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습득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과 정[27]은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 치과위생사로서의 취업 후 자신의 전문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전공에 대한 불만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은 학과를 중도 포기하는 양상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으므로 치위생학에 대한 홍보활동과 전문적이고 전인적인 치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겠다. 학년별에 따른 전공학과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방법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희망진로는 모든 학년에서 치과위생사로의 취업이 높았고, 최와 김[20], 임[28]의 연구에서도 졸업 후 희망진로는 치과위생사를 선택한 학생이 각각 전체의 89.6%와 91.5%이었고, 이와 김[29]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로 취업희망을 선택한 학생이 1학년 96.1%, 2학년 89.4%, 3학년 95.4%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취업 희망경로는 1학년의 경우 교수추천이 높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공개채용이 높았다. 주 등[10]의 연구에서 취업경로는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학교추천, 3학년의 경우 공개채용이 높았다. 주와 이[14]의 연구에서 취업 희망경로는 학교추천이 가장 높았고, 공개채용이 두 번째로 높았다.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기대에 관해 조사한 최와 김[20]의 연구에서 취업경로는 공개채용/입사시험이 가장 높았고, 학교(교수)추천이 두 번째로 높았다. 취업희망 지역은 모든 학년에서 대도시를 희망하였고, 취업희망 지역 선택이유는 발전가능성 항목이 높았다. 주 등[10]의 연구에서 취업희망 지역 선택이유는 보수가 많은 곳을 선택한다가 가장 높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한다가 두 번째로 높았다. 주와 이[14]의 연구

에서도 취업희망 지역 선택이유는 모든 학년에서 보수가 많은 곳을 선택한다가 가장 높았다. 취업희망 지역 선택 시 직장의 발전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 희망기간은 모든 학년에서 결혼 전, 자녀성장 후 재취업이 높았다. 황과 이[18]의 연구에서 졸업 후 취업희망기간의 응답으로 결혼 후에도 계속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의 80.3%이었고, 주와 이[14]의 연구에서는 취업 희망 기간의 응답으로 평생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와 김[20]의 연구에서도 취업 기간의 응답으로 평생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높았고, 결혼 전과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선택한 학생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근무처는 1학년의 경우 대학병원치과, 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치과병원이 높았다. 주와 이[14]의 연구에서 1학년과 3학년은 종합병원, 2학년은 개인병원이 높았다. 강과 김[11]의 연구에서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와 김[20]의 연구에서 근무지 유형의 응답으로 치과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항에서는 대체적으로 병원급 치과를 선호하였고, 개인치과보다는 복지시설과 보수면 등에서 잘 되어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 태도와 신념은 저학년일수록, 가치는 고학년 일수록 높았다. 이 등[30], 황과 이[18]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일한다, 환자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핀다, 청결하고 단정하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항상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친절하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오와 박[31]은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서 의무감을 3.76점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주 등[10]의 연구에서는 책임감이 3.6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은 곧 환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과 강[11]의 연구에서 청결하고 단정하다는 3.91점이었고, 황과 이[18]의 연구에서는 3.78점이었으며, 김과 이[32]는 보건계열자가 비보건계열자보다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강과 김[11]의 연구에서 항상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는 3.50점이었고, 황과 이[18]의 연구에서도 3.47점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전문직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 등[10]의 연구에서 친절도는 3.3점이었고, 황과 이[18]는 3.55점으로 본 논문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교수진은 치과위생사의 바람직한 이미지 형성과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신님의 경우 평생직업으로 적합하다, 사명감이 있다,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이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희망기간을 묻는 황과 이[18]의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를 평생 직업으로 적합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년별로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강과 김[11], 임[33]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적인 여건이 평생 직업으로 작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강과 김[11]의 연구에서 사명감이 있다가 3.60점이었고, 주 등[10]의 연구에서는 책임감이 3.6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과 김[34]의 연구와 임[33]의 연구에서 사회에 대한 봉사과 사명감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강과 김[11]의 연구에서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갖는 자부심은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와 사회적 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 등[35]의 연구에서 적은 연령의 종사자일수록 치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전문적 지식이라 인식하였고, 40세 이상은 성실감과 책임감이라고 인식하였다. 정과 장[36]의 연구에서 진학권장에 관한 문항은 1학년 2.85점, 2학년 2.65점, 3학년 2.61점, 4학년 2.73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 최[37]의 연구에서 학과 진학권장은 1학년의 경우 권장함 50.8%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보통이 각각 42.9%와 53.2%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 치과위생사가 권하고 싶은 직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임상의 업무환경 개선과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치의 경우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호칭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강과 김[11], 황과 이[18]의 연구에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

업이다는 각각 2.03과 2.14점으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대한 인식은 주로 서서 일하는 업무 시스템 때문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근무조건과 환경 등을 개선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할 것이다. 호칭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이를 위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황과 이[18]의 연구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 2.38점이었고, 최 등[38]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가 2.91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구분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된 영역으로의 인정받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분야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치과위생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업무수행을 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진학만족도 요인 중, 전공의지( $\beta = -.076$ )와 진학권유( $\beta = .099$ ) 요인에서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이미지에 따른 간호전공만족도를 조사한 가 등[39]의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강과 김[11]의 연구에서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문직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추천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허[40]의 연구에서는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직업에 대해 가장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등[41] 그리고 최와 허[42]의 연구에서도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도 보통 또는 불만족 보다 이미지 점수가 높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와 허[42]의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이미지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만큼, 전공 선택 시 지원동기가 확실하고 현재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도 높으며 이는 긍정적인 직업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진학만족도는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과위생사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변수



로 나타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학만족도 지수를 주  
기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치과위생사 이미지를 높이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직업이미지는 그 직업에 대한 신념, 인상 또는 인식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일의 성  
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치과위생사 양성기관과 협  
회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치과위생  
사의 고유 업무 등 올바른 이미지의 인식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  
립하고, 치과위생사의 바람직한 이미지화를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표집의 적절성에 다소 부족함이 있  
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 표본의 수집을 설문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속성과파악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변수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화되고, 일반화 될 수 있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치과위생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위  
생사의 업무가 진료보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현재  
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  
록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교육기회  
확대와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치위생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치위생학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위한 교육여건이 재 정비 되어져야 하며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대한 합  
리적인 기준제시와 전문직으로서 치과위생사의 바람직  
한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대구·  
경북지역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  
기기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2  
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46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679부를 SPSS/Win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학년에 따른 진학만족도 차이에서 선택후회와 진학추  
천은 1학년이 2, 3, 4학년보다 높았으며, 전과외지는 3, 2,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진학만족도가 높았다. 희망진로는 모든 학년에서 치과위  
생사로의 취업이 높았고, 취업 희망경로는 1학년의 경우  
교수추천, 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공개채용이 높았  
다. 취업희망 지역은 대도시, 취업희망 지역 선택이유는  
발전가능성이 높았다. 취업 희망기간은 모든 학년에서  
결혼 전, 자녀성장 후 재취업이 높았고, 희망근무처는 1  
학년의 경우 대학병원치과, 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치과병원이 높았다. 학년에 따른 치위생사 이미지 차이  
에서 태도의 경우 1,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신념은  
1, 2학년이 3, 4학년보다 높았으며, 가치는 4학년이 1, 3,  
2학년보다, 2,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  
도와 신념은 저학년일수록, 가치는 고학년일수록 높았다.  
진학만족도 요인 중, 전과외지와 진학권유 요인에서 치  
과위생사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치위생(학)과 진학만족도는 치위생사 이미지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치위생사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치위생(학)  
과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치과위생  
사의 바람직한 이미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체  
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에 대  
한 보다 정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JY Kim, BJ Hw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edical external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and  
hospital image in medical care service", J of the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Vol.2, No.2, pp.3-34, 2001.
- [2] YJ Choi. "Recognition on hospital coordina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 training-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s of nursing/health in some colleges in  
ulsan area", J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3, No.1,  
pp.125-142, 2011.
- [3] JH Park, JY Park.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of  
health manpower in korea", J of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12, No.1, pp.45-61, 1986.

- [4] HJ Youn, JO Jung, KH Lee. "Dental hygienist imag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4, pp.781-792,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4.781>
- [5] JH Kim, HY Kim, SK Lee, YS Cho, YD Park. "A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and manpower among dental auxiliary personnel in dental clinics", *J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2, No.4, pp.540-550, 2008.
- [6] YS Shim, WY Choi. "Perceptual Gap Analysis on Business satisfaction between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3, pp.1165-1170,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3.1165>
- [7] HJ Moon, GH Kim, EY Choi. "A Study on the Employment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eniors", *J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8, No.1, pp.29-39, 2006.
- [8] HJ Jeong, H Aiko. "Current Status of Dental Hygiene and Comparison of Some Curriculums in Korea and Japan",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12, pp.4896-4906, 201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0.11.12.4896>
- [9] SS Hong, SH Jeong, HY Kim, YH Choi, KB Song.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assistant nurses in Daegu, Korea", *J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29, No.2, pp.172-183, 2005.
- [10] OJ Ju, MS You, JS Kim. "A Study on the Occupation Conscious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Korean Society Hygienic Sciences*, Vol.12, No.1, pp.7-16, 2006.
- [11] JK Kang, KM Kim. "Study on the Professional Attitude and the Image of Dental Hygienist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6, No.4, pp.263-269, 2006.
- [12] MJ Kim, HK Lee, YI Kim.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Image Perceived by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1, No.6, pp.481-487, 2011.
- [13] BS Kim, BK Jang. "The Influence of Self-Congruity between Preference Vocational Image and Self-Image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Path", *J of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20, No.1, pp.27-44, 2007.
- [14] OJ Ju, HO Lee. "Study of W Health Science College Dental Hygiene Students Course Consciousnes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6, No.2, pp.119-125, 2006.
- [15] JH Yoo, HJ No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of job selection and movement-Based on dental hygienists who graduated college in metropolitan area", *J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3, No.4, pp.664-672, 2009.
- [16] AR Chung, SH Yoo, NA Ryu.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olleg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2, pp.535-558, 2011.
- [17] JS Kim, EK Jung. "Analysis of the Factors having an Effect on Dental hygienist's Image", *J of Korean Society Hygienic Sciences*, Vol.13, No.1, pp.1-9, 2007.
- [18] MY Hwang, SM Lee. "A Study of Dental Hygienists' Image Impressed o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21, No.2, pp.117-125, 2003.
- [19] HJ Youn, SA Lim, SK Kim. "A study on the impa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1, No.5, pp.389-395, 2011.
- [20] EY Choi, SA Kim. "Dental Hygiene Students' Expectation toward Employment", *J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6, No.1, pp.111-123, 2004.
- [21] KO Lim. "The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major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ir career plans", *Wonkwang University*, pp.16-17, 2004.
- [22] HK Kim. "A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academic department and the consciousness on employ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s-contering on M university in Gyeongnam area", *J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13, No.4, pp.325-338, 2011.
- [23] JY Jung, JI Choi.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Course Education and their Occupation", *J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13, No.1, pp.131-145, 2000.
- [24] DY Park, DY Kim. "A Status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f Students in a Regional University", *J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5, No.2, pp.1-32, 2006.
- [25] SM Lee, SC Kim, SJ Han. "A Study of Work Values o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5, No.4, pp.239-244, 2005.
- [26] OJ Ju, MJ Kim. "Attitude Study for Dental Hygiene and a Student Major School Subject",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5, No.3, pp.125-131, 2005.
- [27] YS Won, MH J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ollege-Entrance Motivation to Satisfaction with Major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4, No.2, pp.85-90, 2004.
- [28] MH Lim. "A Study on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e Freshmen of Major and Occupation",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6, No.4, pp.277-284, 2006.

[29] HE Lee, HY Kim. "A Study on the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on the Major of Some of the Dental Hygienics Department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13, No.3, pp.215-228, 2011.

[30] KH Lee, MS Yoon, MO Ha.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dental hygiene students' image of dental hygienist",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0, No.5, pp.831-839, 2010.

[31] HN Oh, YN Park.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2, No.1, pp.23-29, 2012.

[32] DY Kim, SH Lee. "Recognition of college-preparatory students for dental hygienist",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1, pp.103-111,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1.103>

[33] JE Lim. "The predictors of dental hygienist image among student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yang University, 2006.

[34] EY Jeong, JK Kim. "A study on work value factors and professional attitude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parts",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3, No.3, pp.439-448, 2013.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3.439>

[35] HS Yoon, JS Kim, MO Lee, HD Kim. "Trend in Preference for Dental Hygienist Image among Health Care Worker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0, No.4, pp.211-218, 2010.

[36] JA Jung, YJ Jang. "A study on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1, No.5, pp.649-657, 2011.

[37] JM Choi. "Dental Hygiene Major student's Curriculum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Their Occupation in Kyungnam Area", J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0, No.2, pp.95-108, 2009.

[38] HN Choi, SY Lee, YS Cho. "Career Plan and Job View of the Would-be Graduates of Dept. of Dental Hygiene",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1, No.1, pp.7-14, 2011.

[39] MJ Ka, SM Kim, YK Kim, SJ Nam, LM Oh, JS Lyuck, HI Lee, MN Choi, HM Choi, DE Heo, SJ Yang.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J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No.44, pp.1-15, 2010.

[40] JY Ha. "Image of Nurses and Career Identity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Nursing Science, Vol.24, No.2, pp.23-30,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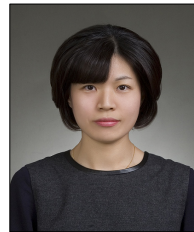
[41] SH Lee, SY Kim, J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2, pp.219-231, 2004.

[42] J Choi, NS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5, No.1, pp.54-63, 2009.

**문 선 정(Seon-Jeong Moon)**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예방치학, 치주학, 구강해부학

**구 인 영(In-Young Ku)**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2년 2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최 화 영(Hwa-Young Choi)**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3년 2월 : 경희대학교 치의학 과 (영상치의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구강방사선학, 예방치학

가 경 환(Kyung-Hwan Ka)

[정회원]



- 1999년 2월 :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5년 2월 :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론, 연구방법론